

논문접수일 : 2013.12.20 심사일 : 2014.01.05 게재확정일 : 2014.01.26

국제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
- 2000년 이후 색채 변화를 중심으로 -

Characteristics of Korean Fashion Design appeared
in International Fashion Collections
- Regarding Color Variation Since 2000 -

주저자 : 김지영

서일대학교 의상과 부교수

Kim, Ji You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il University

교신저자 : 김선아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 산업학과 부교수

Kim, Sun Ah

Dept. of Fashion Design & Apparel Industry, Wonkwang University

* 이 논문은 2012년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E-mail : kjyoung@seoil.ac.kr

1. 서론

2. 이론적 고찰

- 2.1.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의미와 현황
- 2.2. 한국의 전통색과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색채의 선행연구

3.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

- 3.1.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색채공간 분포 분석
- 3.2.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색상과 색조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국제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한국 디자이너에 의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색채의 활용현황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 2006년부터 2010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기별로 분류하여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색채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오방정색 위주의 색채 즉, 고채도의 빨강, 보랏빛 파랑, 그리고 노랑 그리고 무채색의 사용이 주류를 이루었던 2000년 전후와는 달리 2010년대 이후는 오방정색을 위주로 색채를 사용하기 보다는 오방정색의 정색과 정색의 혼합에서 나오는 간색을 적절하게 활용한 결과 다양한 색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즉, 적(赤)과 흑(黑)의 간색인 자(紫)색, 적(赤)과 백(白)의 간색인 홍(紅)색, 백(白)과 청(靑)의 간색인 벽(碧)색, 황(黃)과 흑(黑)의 간색인 유황(驪黃)색 등이 다양한 색조로 나타나서, 현대의 색채 체계에서는 채도가 낮아지고 명도는 높거나 낮아지는 현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색채는 강렬한 원색 위주의 고채도와 무채색이라는 선입견에서 차차 벗어나 진정한 한국 전통색의 의미를 되찾아 가고 있으며 다양한 전통색의 활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한국의 전통색에 대한 학문적 성과가 패션컬렉션의 현장에서도 널리 인식되어 잘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한국적 패션디자인, 오방색, 전통색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color variation characteristics of Korean fashion design in 2001-2005, 2006-2010 and 2011-2014 in order to provide the color-use-status of Korean designers in global fashion shows since 2000.

We have reviewed the meaning and color characteristics of Korean fashion design in the previous study and collected colors directly from fashion photos on the web considered as Korean fashion designs by Korean designers. Color analysis was carried out to extract Hue, Value and Chroma values by "Munsell Notation Picture Analysis" of Munsell Conversion 12.1.16 then arranged by Munsell's 40 color systems and PCCS tones.

Various colors have been applied ever since 2010 along with mixed colors as well as 5 formal colors unlike around 2000 when 5 formal colors on Five-elements Color such as red in a high chroma, purplish blue, yellow and achromatic colors were mostly used. A large variety of colors appeared in each different tone with lower chroma and higher or lower brightness from modern color system perspective as such Ja-color(紫), secondary color between red and black, Hong-color(紅), secondary color between red and white, Byeok-color(碧), secondary color between white and blue and Ryu hwang(驪黃), secondary color between yellow and black, which shows the recovery of true Korean colors applying diverse traditional colors gradually away from the prejudice that traditional Korean colors are achromatic colors or intense primary colors with higher chroma. We can also verify that the academic performance regarding traditional Korean colors has been widely recognized and well applied to fashion shows since 2000.

Key Words

Korean Fashion Design, Five-elements Color, Traditional Color

1. 서론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은 한류의 영향으로 국제사회에 한층 더 긍정적 이미지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제사회는 현대 패션과 한국의 전통복식 요소를 접목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1980년대부터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국제무대에 알리려는 디자이너들의 꾸준한 노력이 이어져 왔으며, 현재에도 국제 컬렉션에는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많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연구는 크게 조형적 특성과 조형의식, 미적가치와 철학적 의미 그리고 전통적 요소를 응용한 현대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패션 디자인에 관한 연구 유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0년대 이전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유형이 주로 형태와 스타일 위주의 디자인과 프로세스 분석에 대한 연구라면, 21세기에 들어서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의 유형은 디자인 요소 중 색채에 관한 연구가 그 비중을 크게 자리 잡게 되었다. 21세기로 진입한 현대는 대중문화 생산활동의 중추적 수단인 디자인의 가치, 디자인의 핵심요소로서의 색채의 의미, 그리고 문화기반을 일구는 일꾼으로서의 색채디자이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어 지고 있으며, ‘문화의 세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색은 시대의 영상을 변화시켜나가는 지배적인 매질(권영걸, 2004)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있어서도 20세기가 스타일에 있어서 한국 문화요소의 모티브 변형과 응용이라면 21세기는 한국 전통색의 의미를 되찾아 현대 패션에서 융합하는 많은 연구와 함께 이를 각 분야에 응용하는 도전과 발전을 이룩한 시기이기도 하다.

현재,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디자인 분석 중에서도 색채에 대한 전문적 연구는 거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자국의 문화를 기초로 하는

현대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된다. 지금까지의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세계화와 보편화를 지향해야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모든 연구자는 그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충분한 분석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구체화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 요소를 패션디자인에 응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계 패션 컬렉션에 등장하는 패션 중 한국의 복식문화에 근원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색채 활용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색채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오방색의 분포 및 관계 분석이 대부분이지만, 현대 활용 색체계 관점에서 본다면, 오방정색의 정색과 정색의 혼합에서 나오는 간색은 오방정색의 다양한 색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국제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한국 디자이너에 의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패션색채를 시기별로 나누어 한국적 패션디자인 색채의 변화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패션디자인 색채의 활용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패션트렌드와의 접목에 있어 합리적 방안과 미래에 한국적 패션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하여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의미와 현황 그리고 한국의 전통색과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색채의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색채 자료는 패션 컬렉션에 발표된 패션을 중심으로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퍼스트뷰(www.firstview.com)에 게재된 한국의 디자이너에 의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이라고 판단되는 패션 사진을 수집하였다. 이는 그들이 한국의 정상급 디자이너이며 오랜 작품 활동기간 동안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추구하여 왔고 한국의

연도 계절 디자이너	2001	2001	2002	2003	2003	2004	2004	2005	2006	2007	2007	2008	2008	2009	2009	2010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S/S	F/W	F/W	S/S	F/W	S/S	F/W	S/S	S/S	S/S	F/W	S/S	F/W	S/S	F/W	S/S	S/S	F/W	F/W	S/S	F/W	S/S
Lee young Hee	43	31	33	36	33	10	19	27			28		24			31	34		30			
Lie Sang Bong						27			6	25	2	5	14	40	15			17			37	36
Sul Yun Hyoung				9	20																	
Vack Yunzung						2		2														
Moon Young Hee							1		5	3		2	1					6		1		
Kim Yeon Ju								1														
합계	작품사진수																					
	294장					201장					161장											
합계	색수																					
	711색					428색					454색											

[표 1] 연도·계절별 디자이너의 작품사진과 색의 수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그것이 작품으로 시각화 되었으며 공인된 국제무대에서도 발표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05년, 2006년부터 2010년, 2011년부터 2014년으로 분류하여 721장을 추출한 후, 패션전공 박사과정 2인과 연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최종판단에 의해 656장의 사진을 선별하였다. 사진자료의 출처와 분량 그리고 색의 수는 [표1]과 같다.

셋째, 웹을 통한 색채수집이 인쇄상태의 색채를 시감비색 또는 측색기를 사용한 색채수집보다 정확도나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웹에서 직접 색채를 추출하는 방식을 취하여 1593개의 색을 수집하였다. 색채분석은 Munsell Conversion 12.1.16의 "Munsell Notation Picture Analysis"를 사용하여 이미지에서 스포이드 방식으로 직접 Hue, Value, Chroma 값을 추출하여 먼셀의 40색상체계와 PCCS 색조로 정리하였다.

넷째, 2000년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색채를 구간별로 비교하여 색채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고, 한국적 패션디자인 색채의 활용현황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미래에 한국의 문화를 담은 패션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밝혔다.

2. 이론적 고찰

2.1.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의미와 현황

한국 전통복식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제회의 및 국제교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복식분야에서도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김영인 외, 2002). 이 시기에 국내에서는 한국적인 패션디자이너들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주로 전통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응용한 디자인으로 표현하거나 재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1990년대 이후 이영희, 진태옥, 홍미화를 비롯한 한국 디자이너들이 파리 컬렉션을 비롯하여 국제무대에 진출하면서 한국의 전통 요소를 재해석하여 서구패션과 융합하여 한국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자연스러운 디자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김영인 외, 2006).

한국적 패션디자인이란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한국의 복식미를 활용한다는 것이며, 전통복식의 재현이나 모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감각 속

에 녹아있는 원형(原形)에 대한 이미지의 표현이며 한국적인 조형감각의 패션화라고 할 수 있다.

김민자는 “한국적이란 단순히 옛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한국 전통 문화가 현대화와 부딪히며 겪게 되는 역사적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이란 한국 전통복식미와 현대 패션디자인에 있어 한국성(무분별한 서양 패션의 복제성)의 해체를 의미한다. 또한, 종적 사고로서 한국 전통 복식미의 특수성과 횡적 사고로서 최첨단 기술과 새로운 정보인 세계 패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며 이의 융합으로 새롭게 탄생됨을 의미한다. 이를 빌려 한국적 이미지를 연상하며, 한국적 독창성 및 정체성과 소통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2009, p.173).

전통복식은 일반적으로 한 민족의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독특한 조형미를 갖고 있으므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작과정에서 디자인의 영감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 따라서, 한국 전통복식의 조형적인 독창성은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자신들의 컬렉션에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이라는 내용으로 진지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 패션계에도 한국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 방법의 하나로 소개(김영인 외, 2002)되고 있다.

2.2. 한국의 전통색과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색채의 선행연구

음양오행사상은 조화와 통일을 강조하는 세계관으로, 음양설과 오행설은 원래 독립되어 있었으나 대략 기원전 4세기 초인 전국시대에 결합되기 시작하여, 제(齊)나라의 추연(騶衍)이 체계적으로 결합시켰다. 이것은 음과 양의 상호 보완적인 힘이 서로 작용하여 우주의 삼라만상을 발생시키고 변화, 소멸시키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음양설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된 오행설에서 오행이란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5원소를 말한다. 이 5원소가 우주 사이를 유행, 변전하여 만물을 생성한다는 것이 초기의 오행설이었다. 오행의 개념은 다섯 종류의 기본적 물질이라기보다는 다섯 가지의 기본적 과정을 나타내려는 노력의 소산이며, 영원히 순환운동을 행하고 있는 다섯 개의 강력한 힘을 나타낸다. 오행설은 그 뒤 계절(季節)·방위·색·맛·음(音)에 이르기까지 오행을 배당하게 되었으며 종교적인 예언에 이용되기도 하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1990).

음양오행적 우주관에 의하면 동서남북 및 중앙의

오방(五方)이 그 주된 골격을 이루고 각 방위에 해당하는 색은 청(靑)·백(白)·적(赤)·흑(黑)·황(黃)으로서 양(陽)에 해당하며 정색(正色)이라고 부른다. 동방과 서방의 사이에는 벽색(碧色), 동방과 중앙 사이에는 녹색(綠色), 남방과 서방의 사이에는 홍색(紅色), 남방과 북방의 사이에는 자색(紫色), 북방과 중앙 사이에는 유황색(驪黃色)을 이루어 이것을 음(陰)에 해당하고 간색(間色)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오정색(五正色)과 오간색(五間色)은 한국문화 속의 기본색으로서, 우리 선조들은 음양오행의 이치대로 색채를 생활에 활용하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1989).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전통색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면서 전통색을 현대의 표준화된 색체계로 정의하는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1990년대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제 1차 시안”(국립현대미술관, 1991)은 오방정색의 적(赤), 청(靑), 황(黃)색을 각각 6.9R 3.4/11.4, 8.3PB 2.2/10.1, 7.5Y 8.7/9.1으로, 자(紫), 홍(紅), 벽(碧), 녹(錄), 유황(驪黃)색을 각각 8.3RP 2.2/6.1, 2.8R 4.2/15.1, 2.6PB 4.9/9.8, 0.9G 3.5/3.9, 1.5Y 6.3/5.8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문은배(2012)는 오방정색의 적(赤), 청(靑), 황(黃)색을 각각 7.5R 3/12, 5PB 3/10, 2.5Y 8/12로, 자(紫), 홍(紅), 벽(碧), 녹(錄), 유황(驪黃)색을 각각 7.5RP 3/8, 7.5RP 5/12, 2.5PB 6/10, 7.5GY 4/6, 10YR 4/6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PCCS 색조로 분류하면 대체로 s, dp, b 등으로 명도는 차이가 있으나 채도가 높은 색이다. 그러나 적(赤)과 흑(黑)의 간색은 자(紫)색이라는 것과 같이 간색은 원래 정색과 정색의 혼합이라고는 하지만 위 두 자료에서 모두 자색을 7.5RP로 규정하여 색조의 변화 뿐만 아니라 유사 색상군으로 색상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이 외, 한국의 패션디자인의 원형인 전통복식의 색채에 대하여 금기숙은 조선복식의 미적 특징을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풍성한 형태감 속에 곡선과 울동미를 함유한다고 하면서 깊이 있고 차분한 소색(素色)과 백의의 아름다움 위에 흑백의 조화, 원색과 색동의 조화와 같은 의외의 변격이 나타나는 미적 특징이라고 하였다. 문양에 있어서도 직물의 소문(素文)과 지문에 의한 은은한 미가 주류를 이루지만 파격적인 원색의 문양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양면성을 드러낸다고 하였다(1990, pp.180-181).

최세완·김민자는 한국 복식의 전통미를 형식미와 내용미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형식미로는 선의 미, 비구조적인 평면, 백색의 애호, 자연의 현상에서 보

이는 대비색 조화, 유사색 조화, 무채색 조화 등을 들었고, 내용미로는 자연주의에서 발전된 순수미, 무속신앙과 음양오행설에 따른 상징미, 유교적 예관념에 따른 비애미를 제시하였다(1993, p.116).

이와 같이 한국의 전통복식의 색채는 무채색, 채도가 낮은 은은한 색, 그리고 원색으로 표현되고 있다.

김지영은 “한국 전통색채가 오방정색을 비롯하여 간색인 중간색상과 중간 명·채도의 다양한 색채를 포함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적 패션디자인에서는 오방정색 위주로 색채가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색채를 무채색 위주의 고·저명도, 그리고 명절복 및 축제복식에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고채도의 색채로 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 디자이너에 의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색채보다 외국 디자이너에 의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에서 더욱 뚜렷이 오방정색 위주의 색상으로 한국의 전통색을 인식하며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2009, p.46).

이와 같이 한국적 패션디자인 색채의 활용에 있어서 진정한 한국의 전통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할 수 있다.

3.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

3.1.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색채공간 분포 분석

Munsell Conversion에 의하여 추출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색채를 연도에 따른 구간별로 "3D Display of HVC"에 의하여 색채의 값을 대입시켜 색입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하여 색채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디자인 색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색입체를 통한 색채공간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Y에 기울어진 R계열, Y계열, 그리고 R에 기울어진 B계열에서 다양한 색조로 분포되어 있었다. 특히 R계열은 모든 색상 계열 중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색상분포와 색조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세 구간 모두 G계열에서는 색상영역과 색조영역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 영역과 비교했을 때, 명도가 높은 색채 분포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높은 채도의 R계열의 분포 또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한

국적 패션디자인 색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색입체를 통한 색채공간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Y에 기울어진 R계열, Y계열, 그리고 R에 기울어진 B계열에서 색상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R계열에서 다양한 색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의 v, Y계열의 b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서 2000년 이전부터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고채도의 색채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한국

연도구분	색입체	색상분포	색입체 측면			
			0°	90°	180°	270°
2001-2005						
2006-2010						
2011-2014						

[표 2] 한국적 패션디자인 색채의 구간별 색채분포

지의 구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명도와 채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디자인 색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색입체를 통한 색채공간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Y에 기울어진 R계열, Y계열, 그리고 R에 기울어진 B계열에서 다양한 색조로 분포되어 있었다. 채도는 높지 않지만 다양한 색조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2]는 Munsell Conversion에 의한 "3D Display of HVC"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3.2.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색상과 색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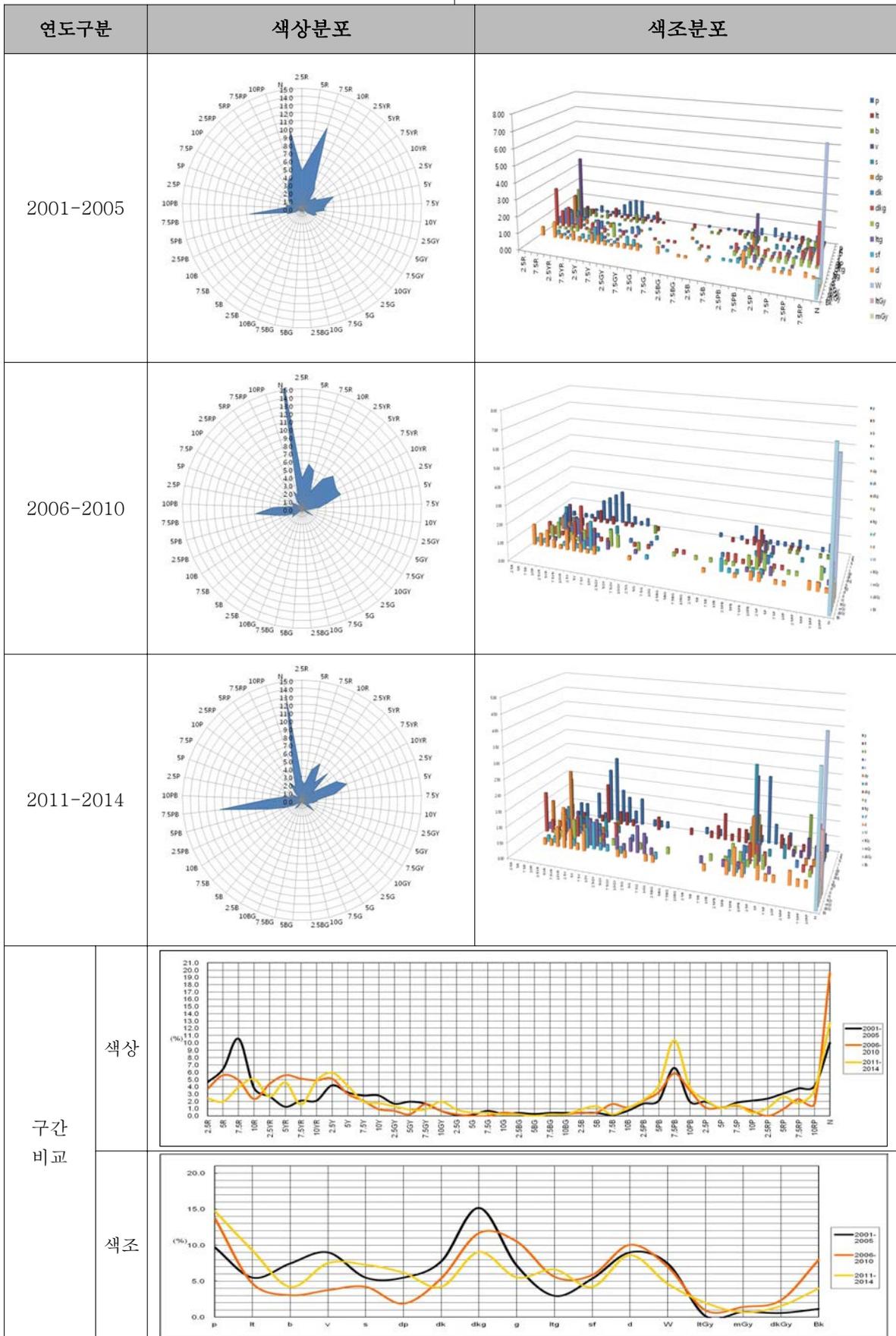
좀 더 면밀한 분석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디자인 색채의 색상을 먼셀의 40색상체계와 PCCS로 분석한 결과, 2.5R, 5R, 7.5R, 2.5Y, 7.5PB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여서 전체 색상의 36.3%를 차지하였다. R계열은 25.5%로 어떤 색상계열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무채색은 10%로, 세 영역 중 가장 낮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R계열 전체에서 v, s의 비율이 8.44%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고채도의 빨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B계열

적 패션디자인 색채의 색상을 먼셀의 40색상체계와 PCCS로 분석한 결과, R부터 YR, Y까지 그리고 PB의 색상과 무채색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이 색상을 중심으로 p, v, d, g, dkg 등 채도는 다양하게 명도는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전 구간보다 고채도 영역이 낮아지고 중명도 중채도 영역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디자인 색채의 색상을 먼셀의 40색상체계와 PCCS로 분석한 결과, 색상으로만 보았을 때는 전형적인 R, Y, PB 그리고 무채색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색조에서 전체적으로 채도가 낮아졌고 명도의 범위는 앞에서 살펴본 두 구간보다 더욱 고명도와 저명도의 채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증명도·중채도의 색조인 sf, d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종합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색채가 채도는 비교적 낮은 범위에서 다양한 색조가 고르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오방정색 위주의 색상의 분포를 넘어서 오간색의 다양한 색채가 오방정색의 색상을 기준으로 하여 색조의 다양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색채는 개별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항상 대비 현상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주조색은 무채색과 채도



[표 3] 구간별 색상과 색조 분포

가 낮은 오간색으로, 강조색은 높은 채도의 오방색으로 주고 활용되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표3]은 구간별 색상과 색조 분포 그리고 각 구간을 비교한 것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4. 결론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국제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한국 디자이너에 의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색채의 활용현황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 2006년부터 2010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기별로 분류하여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색채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의미와 현황 그리고 한국의 전통색과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색채의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한국의 디자이너에 의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이라고 판단되는 패션 사진을 수집하여, 2001년부터 2005년, 2006년부터 2010년, 2011년부터 2014년으로 분류하여 웹에서 직접 색채를 추출하는 방식을 취하여 색을 수집하였다. 색채분석은 Munsell Conversion 12.1.16의 "Munsell Notation Picture Analysis"을 사용하여 Hue, Value, Chroma 값을 추출하고 먼셀의 40색상 체계와 PCCS 색조로 정리하였다.

분석결과, 오방정색 위주의 색채 즉, 고채도의 빨강, 보랏빛 파랑, 그리고 노랑 그리고 무채색의 사용이 주류를 이루었던 2000년 전후와는 달리 2010년대 이후는 오방정색을 위주로 색채를 사용하기 보다는 오방정색의 정색과 정색의 혼합에서 나오는 간색을 적절하게 활용한 결과 다양한 색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즉, 적(赤)과 흑(黑)의 간색인 자(紫)색, 적(赤)과 백(白)의 간색인 홍(紅)색, 백(白)과 청(靑)의 간색인 벽(碧)색, 황(黃)과 흑(黑)의 간색인 유황(驪黃)색 등이 다양한 색조로 나타나서, 현대의 색채 체계에서는 채도가 낮아지고 명도는 높거나 낮아지는 현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디자이너의 취향이나 유행경향이 작용하여 색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전통색채는 강렬한 원색 위주의 고채도와 무채색이라는 선입견에서 차차 벗어나 진정한 한국 전통색의 의미를 되찾아 가고 있으며 다양한 전통색의 활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한국의 전통색에 대한 학문적 성과가 패션컬렉션의 현장에서도 널리 인식되어 잘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트렌드를 동시에 고려하여 접목점을 찾는 것과 동시에 더욱 중요한 과제는 현대의 트렌드를 받아 들여 현대적 감각이 녹아있는 창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 실천의 방안으로, 현대화 과정에서도 전통성을 잃지 않아야 할 첫 번째 디자인 요소가 바로 색채라고 할 수 있다. 색채의 전통성을 잃어버리면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정체성은 모두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색채의 전통성을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첨단기술 소재의 적극적인 활용과 형태적인 측면에서 현대성과 접목하여 트렌드를 받아들여 국제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현대미술관 (1991).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제1차 시안)』.
- 권영걸 (2004). 『색채와 디자인 비즈니스』. 서울 : 도서출판 국제.
- 금기숙 (1990). 조선복식미의 연. 『복식』, 14, 180-181.
- 김민자 (2009).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제다움 찾기』.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영인 외 (2002).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표현한 이미지어에 대한 고찰. 『디자인학연구』, 15(3), 18.
- 김영인 외 (2006). 『Look』. 경기 : 교문사.
- 김지영 외 (2009).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코리언 룩의 색채경향. 『한복』, 12(1), 46.
- 문은배 (2012). 『한국의 전통색』. 서울 : 안그라픽스
- 최세완, 김민자 (1993).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한국의류학회지』, 17(1), 11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198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19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http://www.firstview.com>